

## 아인병원 '부신·갑상선 동시 절제 단일공 로봇수술' 성공

등록 2025.10.19 11:34:14



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 제공

[인천=뉴스시스] 함상환 기자 = 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은 국내 최초로 단일공 로봇수술기를 통한 부신 종양과 갑상선암 동시 수술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인병원 갑상선센터 이진욱 센터장은 쿠싱증후군을 앓고 있는 30대 환자 A씨를 대상으로 오른쪽 부신과 왼쪽 갑상선을 동시에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A씨는 오른쪽 부신에 3cm짜리 종양으로 인해 체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쿠싱증후군을 앓고 있어, 급격하게 살이 찌고 고혈압과 당뇨로 약에 의존하고 있던 환자였다.

부신 절제술은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고, 수술 후 내과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A씨는 왼쪽 갑상선에도 1cm 크기의 갑상선암이 의심되는 결절이 있어, 부신과 갑상선을 동시에 진단하고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고 있었다.

이진욱 센터장은 갑상선 결절에 즉시 세침검사를 시행, 다빈치 단일공(SP) 로봇수술기로 후복막을 통한 단일공 우측 부신 절제술과 유륜을 통한 갑상선 좌엽 절제술을 마취 한 번으로 시행하는 수술에 성공했다. 국내에서는 처음 실시된 수술이다.

환자는 합병증 없이 회복 중이며, 수술 직후 혈압 수치가 기존 150에서 100으로 정상화되는 등 호르몬 수치와 생리적 지표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혈압과 당뇨약을 줄이고 있다.

이진욱 센터장은 “쿠싱 증후군은 부신 종양에 의한 호르몬 과다 상태를 야기하며 정상인보다 5배 이상 사망률이 높아지는 위험한 만성 질환이며, 반드시 수술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 후 내과적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인병원 갑상선센터 이진욱 센터장, 신명호 과장은 세계최초 한쪽 유륵을 통한 갑상선암 로봇수술(SPRA)에 성공했으며 지난 8월 SCIE급 국제 학술지에 SPRA 방법을 이용한 측경부 절제술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오익환 이사장은 “이번 수술 성공으로 까다로운 부신 수술은 물론 갑상선암, 대장암 등 고난도 질환까지 로봇수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갖추도록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